

[기획]

중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담양 창평 고택서 3년째 사는 독일인 베르너 사세 교수



독일인 베르너 사세 교수가 3년째 거주하고 있는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삼지천 마을 고재옥 한옥에서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위직기자 jwi@kwangju.co.kr

여행노트 담양 창평을 다녀와서...

겨울바람이 독기를 잃었는지 훈김마저 느껴오는 휴일 오후다. 방안을 뒹굴 거리는 가족들을 재촉해 나들이를 나섰다. "우리 담양 같가?" 관방천과 메타세쿼이아 숲길, 그리고 죽 늘어선 국숫집, 창평 국밥, 대나무밭... 그런 볼거리 먹을거리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담양행에 이견이 없나 보다. 하지만, 나는 옛집들과 돌담 오롯한 마을 길을 따복따복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또 운이 좋으면 그 유명한 '창평쌀'도 맛보고... 비록 한나절일망정 '슬로시티'로 지정된 삼지천 마을을 돌아보며 천천히 해찰을 부러볼 요량이였다.

보는 순간, 오만가지 벽에 갇혀 살아온 도시의 삶들이 해실해실 풀어진다. 벽이란 완벽한 차단, 그 어떤 틈입도 허용하지 않는 경계와 단절이지만 담양은 다르다. 울퉁불퉁 곡선의 아름다움이 사람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깨끔발로 넘겨다 보면 더러 집 주인과 눈도 맞출 수 있다. 담양은 소통과 교류를 허락한다. "엄마! 이 집은 송아지를 키우나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열린 대문 안으로 우르르 들어선다. 누런 소들이 연방 짹 짹 씹고 있다. 신이 난 아이들이 짹을 쥐어다 여물통에 던져떨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외양간 안에서 나오신다. "재미지냐? 찬찬히 구경하구려"하며 인자한 웃음까지 선사해준다.

옛길을 걷고 옛집을 둘러보고

오만가지 벽에 갇힌 도시의 삶들이 슬며시 풀어진다

골목길 따라 앞서거나 뒤서거나 걷다 보니, 옛을 만드려고 남는 찌꺼기를 내놓은 집이다. 3대를 이어 창평쌀을 만드는데는 집, 부모님의 수레, 옛 기술을 이어받았다는 송희용씨가 불청객들을 반갑게 맞는다. 옛을 사볼까 했는데, 만들자마자 전적으로 팔려나가는지라 판매용이 없다. 송씨는 맛이라도 보라며 쟁반 가득 옛을 담아 건네준다. 달콤하고 고소한 옛 맛이 일품인데 입안에도 이빨에도 붙지 않는다. 소 키우는 어른이나 옛 만드는 장인이냐, 동네 인심이 정말 푸지다. 골목길 오가는 자동차, 트인 하늘을 가리는 전봇대와 영진 전선들만이 슬로시티의 밍살이네 유감이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누워있어 지고 있다. 삼지천 마을의 저녁도 노을처럼 발광계 시나브로 익어간다. 아름답고 고즈넉한 돌담길을 두고 오자니 아쉬웠다. 햇살 고운 봄날엔 하루 종일 돌담길을 걸으며, 명옥헌 지나 광주호 감아 돌고 굽이굽이 무등산을 넘어 집으로 향했다. 김희양(주부·광주 동구 율리동)

“한옥·돌담길...사람 사는 맛이 있는 곳”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 마을 한 고택에는 3년째 한국의 자연과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 '슬로 라이프(life)'를 즐기는 독일인 교수가 있다. 프랑크푸르트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인 베르너 사세(Werner Sasse·67)교수가 그 주인공. 그는 지어지 지 100년 가까이 된 전통 한옥에서 느긋하고 여유있는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아름답기까지 하다"며 마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유독 오래된 한옥을 선택한 이유도 있다.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은 말 그대로 자연으로 지은 집입니다. 나무와 흙, 종이만을 사용해 어떻게 바람의 방향과 습도, 온도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지? 자연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한옥에

간경원 양식인 소쇄원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나무마다, 돌마다, 계곡에 흐르는 물마다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뤄낸 소쇄원은 흥미로운 연구 소재"라고 말했다. 남은 시간은 동네 '마실'을 돈다. 돌담길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찾아 부지런히 운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람을 만나고 걷는 게 자연스러운 슬로 라이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친화적 주택에서 거주하는 '슬로 하우스(House)'에서부터 느긋하게 늙어가는 '슬로 에이징(Aging)'에 이르는 슬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사세 교수는 이제 담양 창평면의 전통한옥과 돌담길에 이어 또 다른 슬로시티의 명물이기도 하다. 사세 교수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66년, 나주에 호남 최초의 비료공장 설립자가 그의 장인인 호남 씨였다. 호남 씨는 공장에 근무할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나주기술학교를 세웠다. 그는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한국과 연을 맺었다.

2년 뒤 독일로 돌아가 보름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사세는 1975년 '계림유사'에 나타난 고려방안으로 한국학 박사를 받고 대학교수가 됐다. 이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했다. 1992년엔 함부르크 대학교로 옮겨 한국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유로운 일상속 수묵화 그리고 가사문학 공부 "사람을 만나고 걷는 게 자연스러운 슬로 라이프"

찬문을 썼다. 그의 일상 생활은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이 가득하다. 매일 오전 9시 늦은 기상을 하는 그는 한지에 수묵화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수묵을 이용한 추상화를 그리는 그는 벌써 두 번째 전시회도 열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외에는 가사문화권에 대한 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국제학회에서 자연의 미(美)를 그대로 살린 한국의 민

을 산책하며 이웃 주민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 받는 것도 그의 일상 중 하나다. 또 시간이 날 때면 인근의 창평시장도 자주 찾는다. 쇼핑도 하고 좋아하는 장터 국수로 점심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는 "장터를 돌면 사람 살아가는 맛이 느낄 수 있어 좋다"면서 "어릴 때는 밤 늦게까지 장터에서 주민들과 술도 한 잔씩 한다"고 웃음을 지었다. 또 "승용차나 승강기가 없으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을 찾아 돌담길을 걷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여유로워 보인다.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featuring '大山프리모남녀가발' and '초슬림!!' (Ultra Slim!!). It includes photos of people wearing wig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Republic of Korea NO.1 Divorce Specialist Company) by '행복출발' (Happy Start). It features photos of a smiling couple and contact information.